

혁명의 전사의 영원한 녀원

폭풍처럼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교향곡과도 같이 장중히 울리는 노래들, 천만의 심장을 역세게 뚫어주고 최후승리로 고무추동하는 명목들이 《전사의 녀원》,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이 노래들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며 노래로 승리한다는 우리 혁명의 진군궤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일성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일련단심의 불꽃이 이 노래들이 더 높이 울려 승리의 불꽃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시라.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렬한 감정으로 이 노래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천만심장의 피줄과도 같은 이 노래들이 더 높이 울리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호모심, 결사옹위의 신념과 루지도 충만한 이 노래들에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영원한 일련단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다짐없는 충정과 의리의 세계가 웅성같이 비껴났다.

사태가 이 노래들에 과연 어떤 감동깊은 력사가 깃들여있는 것인가. 무적의 장군을 명철하신 불세출의 장군이시였을뿐 아니라 한번 펜을 잡으시면 주먹같은 문과와 쇠뿔한 신검으로 자신의 심장을 자처한 근근이 시대혁명들을 창작하신 문학예술의 거장인 어버이장군님, 심도있는 음악을 좋아하시고 아름다운 음악, 찬미의 예술을 요구하신 위대한 장군님, 음악을 모르면 정치를 못한다는 확고한 견해와 리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음악의 지위를 비참히 높여주신 천재적인 음악대가이신 우리 장군님, 앞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을 때 이 투쟁을 령도한분이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명장이었다고 생각할지 알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당부하시며 음악을 각별히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이 노래들을 남다른 감정으로 사랑하시라.

음악은 위대한 철학이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우아하게 하며 도덕적으로 완성시킨다. 음악은 바위도 녹이고 참나무도 휘게 하는 힘을 가진다. ... 무릇 역사에서 등장한 많은 정치가들

과 명인들이 이렇듯 음악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였다. 인류의 음악사는 수많은 음악사조와 류파의 교체과정을 통하여 찬란한 음악의 역사를 그려야 하는 가 하는 근근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여 온 력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장구한 시대를 거쳐 온의 되어 음악의 참다운 사명과 역할, 그 성격에 관한 공통된 견해는 음악학 학문의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주로 인민의 강령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평한것이 일반적이었다.

음악은 시대의 배아이고 혁명적열정의 불꽃이다. ... 노래는 혁명시대의 상징이다. ... 노래소리 높은 곳엔 혁명의 승리가 있다. ... 음악에 대한 사랑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혁명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

이처럼 음악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여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다. 한편한편의 명목이 원근만나, 핵무기를 대신한다는 확신으로 그 전기를 누구보다도 중시하시고 더없는 무기로 활용하신 우리 장군님의 특출한 음악세계, 그 심도와 폭은 누구도 가늠하지 못한다.

우리 장군님의 첫사랑은 음악이었다. 음악에 각별한 정을 부어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노래 《전사의 녀원》,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과 같은 노래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는 수령님의 노래이다. ... 노래는 개인의 운명과 행복, 미래가 수평과 맥여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음악은 위대한 철학이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우아하게 하며 도덕적으로 완성시킨다. 음악은 바위도 녹이고 참나무도 휘게 하는 힘을 가진다. ... 무릇 역사에서 등장한 많은 정치가들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따를 불라는 열망으로 심장이 말아오르게 하는 노래 《전사의 녀원》, 한편의 혁명영화에서 울린 이 노래가 위대한 시대를 상징하는 명목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뚫어주고 시대를 들끓게 했었다는것까지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도 전사는 언제나 한마음 장군님 모시고 싸워가다 그 영광 가슴에 넘치네 장군님 안녕하시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사의 녀원은 언제나 오늘날도 하나뿐

할일유격대 대장은 적구공작임무를 받고 장군님의 곁을 떠나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면서, 적들과 싸우다 희생된 사랑하는 영남의 이 신을 휘몰아치는 등판에 묻는 그 준엄한 시각에도 오직 한마음 《장군님 안녕하시라》고 전사의 녀원을 담은 장수의 노래를 부른다.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생명인 수령에 대한 신념과 의리를 감동깊이 반영한 노래 《전사의 녀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잊지 못할 노래를 뜨겁게 새겨주시었다. 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한 심장의 노래인가. 할일유격대원들은 목숨이 생각에 이르고 목욕이 땅속에서 파묻혀도 일련단심 장군님을 따라갔습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엄을 받들어가는 전사들이, 조국을 떠나있는 전사들이 수령님을 그리워하고 수령님의 안녕을 절절하게 녀원하는 그나리장과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할일유격대장관인 철오와 같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였다. ...

혁명적신념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훌륭한 음악은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켜 주고 지향하게 하며 심장에 불을 활활 지펴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서 자란 천만민의 아들딸들의 혁명적신념과 심오한 정치적감정을 체현한 이 노래, 천만의 철의 대오의 가장 불타는 마음,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정과 열, 아름답고 고상한 호모심성의 불꽃인 《전사의 녀원》.

이 노래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울려 우리 천만군민의 무적의 힘의 원천으로 시대를 격동시켰었다. 인민이 있고 전사들이 있는 곳이면 천리길, 만리길도 웃으며 가시고 위대한 전진길도 주저없이 가신 우리 장군님, 가시어는 사랑하는 자식의 집을 찾은 부모의 심정으로 구석구석 보살펴주고 위해주신 우리 장군님, 그에게서 제시는 못에 한물기 비론 눈보라를 헤쳐가면서, 찬바람이 불어치지 않아주었으면... 장군님 안녕하시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한목소리로 심장의 노래를 부르듯 또 불렀다. 영화와 같은 이 일련단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우리 조국의 날과 날들은 력사가 잊지 못하는 수령님처럼로 달아오르고 일련단심의 장엄한 화폭을 열지 않았다.

우리 인민만큼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받드는 수령님도, 결사옹위의 성스러운 력사를 눈물겹게 수송아가는 인민은 세상에서 없다는것을 실증한 격동적인 나날이었다. ...

천만의 철의 대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간직하고 그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며 비록 심장의 고통은 멈춘다 해도 그 품에 영생하려는 신념과 의지로 불타게 하는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목욕하여 가지고다니시면서 들으신 이 노래에 있는 우리 장군님의 남다른 음악세계는 또 얼마나 깊은 여운을 주며 오늘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따르는 길로 천만군민을 고무추동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가 새 세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도는 무역전쟁, 자원쟁탈전이라고 하면서 경제주도를 따라 미친듯이 경쟁할 때 조선에서 더 높이 울린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편의 노래가 누구나 다 부를 사랑하는 수령님들의 송가로 하여금 하는가 애드리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명목으로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5년전 1월 초 이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는 혁명영화 《첫 무장투쟁에서 이어나가기》의 주제가 된다. 나는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우다 적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주어수령님께서 계시는 라자구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간곡히 강조하시었다.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와 같은 수령님모정심을 반영한 노래들은 우리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

어떤 인생관, 생의 철학을 지니었든가를 격조높이 선언하며 세계를 진감시키고 류매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

우리가 어떤 무기를 만드는가에 신경을 도사리고 날뛰던 적의 아성에 서 핵무기를 터친것보다 더 큰 비명을 울리게 한 사연이었다. ...

혁명의 사명부가 자리잡고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조국의 운명이었고 혁명의 운명인 장군님을 보위하여 혈전의 길을 뚫고 불타다를 헤쳐갈 때 새로 심장을 불태운 첫 세대 혁명가들의 신념과 의지가 세월을 넘어 변하지 않게 한 노래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에도 함포 같은 사연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펜을 드시고 심혼을 쏟으시어 완성시켜 주신 노래이다. ...

세계가 새 세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도는 무역전쟁, 자원쟁탈전이라고 하면서 경제주도를 따라 미친듯이 경쟁할 때 조선에서 더 높이 울린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편의 노래가 누구나 다 부를 사랑하는 수령님들의 송가로 하여금 하는가 애드리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명목으로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격동적인 시기, 영광찬란한 시대를 반영하여 수령님들의 노래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기도 하였다. ...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존엄한 불려보아도 목이 메이고 눈굽이 뜨겁게 젖어드는 인민의 심장의 언어가 그대로 노래곡으로 쏟아져나오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목욕하여 가지고다니시면서 들으신 이 노래에 있는 우리 장군님의 남다른 음악세계는 또 얼마나 깊은 여운을 주며 오늘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따르는 길로 천만군민을 고무추동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가 새 세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도는 무역전쟁, 자원쟁탈전이라고 하면서 경제주도를 따라 미친듯이 경쟁할 때 조선에서 더 높이 울린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편의 노래가 누구나 다 부를 사랑하는 수령님들의 송가로 하여금 하는가 애드리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명목으로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세계가 새 세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도는 무역전쟁, 자원쟁탈전이라고 하면서 경제주도를 따라 미친듯이 경쟁할 때 조선에서 더 높이 울린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이 한편의 노래가 누구나 다 부를 사랑하는 수령님들의 송가로 하여금 하는가 애드리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명목으로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절세 위인들과 녀성들

력사적 사변

해방된 조국땅에서 력사적인 남녘정권변천의 환희가 차넘치던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일꾼들로부터 오랜 세월 빛나며 살아온 녀성들이 희망찬 새 삶을 안겨주시는 수령님께서는 감사드리며 새 조국건설에 헌신할것을 권유하시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일꾼들께는 남녘정권변천이 실시됨으로써 조선녀성들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새 생활장조를 위한 길 이 활짝 열리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하나의 큰 사변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자랑이며 긍지

어느때 창조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시던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자라온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조선의 녀성들이 정말 장하다고 교시하시었다. ...

혁명을 위하여 남자들이 같이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용감하게 싸운 조선인민혁명군 녀성사들처럼 많은 사상과 희생안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 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은정어린 조치

첫 어머니날에 즈음하여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로 준비하던 날에 있던 일이다. 그때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면제의 하나가 첫머리어머니를 가진 대표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조국을 떠날때 기동감들을 더 많이 남기며 에국의 마음을 안고 8남매, 10남매의 어머니가 된 녀성들속에 첫머리어머니를 가진 녀성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단려녀성들속에 그런 어머니들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대회에 어머니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안고있었다. 이런 때 감동적인 사랑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충직한 혁명가들로 더욱 억세게 자랑하였다는 것을 믿어주시었다.

사망의 금방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

조제 73(1984)년 10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과학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그이께서는 과학자들이 새로 만든 제품들을 보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제품들을 보시고 매우 만족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을 떠메고나갈 담당자들인 것만큼 우리 일꾼들은 이들을 이기고 귀족이 되길 갈망하지 않겠다고 하시었다. ...

너들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과학자들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담아 하시게 하시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들의 생활 형편도 하나하나 세심히 알아 보시었다. ...

그러시고는 일꾼들에게 과학자들이 감성각이 없어 과학원 사업에 전심전력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을 위해 헌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다신하신 은정에 의하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랑의 금방석위에 앉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량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만문 하야은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신흥철 위무성 부상과 쿠바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18일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은 40년을 맞으며 열리는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게 된 3대혁명기술들과 선군시대공로자들, 일꾼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참가자들을 만났다.

박봉주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께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세포지구를 글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당의 현대한 구상에 의하여 세포, 한련 총리는 원산지구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면서 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건설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설계와 시공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철도건설을 견장성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박봉주총리 원산지구건설정형 현지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에게 수여

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신흥철 위무성 부상은, 관계부문 일꾼들과 쿠바



서사시

백두산 영웅청년화

-이 서사시를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원들에게 드린다-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부위원회

이득한 태고의 세월
잠들었던 백두산용암이
청춘활화로 다시 뿜어올라
백두산백우에
또 하나의 배우리를 앉혔는가

취 휘-
구름발음 휘강고 치솟은 청춘연애
쏟아져내리는 해살에
거대한 가슴을 갑옷처럼 번쩍이는
신비로운 그 용자

이 나라 청춘들의
기개와 모습을 알아
그리고 억세고
그리고 멧지고
그리고 장한것이냐

애국의 피땀인양 불같이 팔아오른
청춘들의 힘이 받아들여올린
영웅청년연애는
백두산애국의 빛나는 국장의 모습
그대로 비껴안았는가

언제여, 너는
백두산영웅청년시대의 산아
승리를 노래하는 전설의 가슴
말하라 해치라
이 기적의 창조자가 누구인가를
백두산영웅청년시대의
위대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1
눈썹이 아득해라
신기루마냥 솟아오른
영웅청년연애의 그 지대
이 마음은 천상성악
백두산상에 오른듯

눈부시구나
언제야해 펼쳐진
북방평야의 별새상 별천지
천고밀림을 꿰찼터 뻗어간
은빛승전선담들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유유히 노니는 물오리떼들
밀포리 감자꽃보다 절베는 동안을
지나
새 집의 주인들이 보급자리를 편
그림같은 새 마을들

신념들 넘어 어린 백두대지에
뿜져산의 후손들이
후더운 땀을 뿌려 펼쳐놓은
회한한 천지개벽이여

그리워라 그리워
언제란간에 두손을 얹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영상

영웅청년연애를 안아올린
돌격대원들이 장사하여
격정의 시구절을 읊으시던 그 음성
하늘가 저 멀리 메이리쳐오는가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
파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정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
이여

팍팍한 저 하늘에 새기라
이러한 천길벽벽에 쪼아 새기라
청년강국의 기상이 맥동치는
심원한 그 뜻
대해같은 그 서정

위대한 행장의 가슴에
일이며 사움치는
그 무한한 서정의 바다에서
우리 부르는
백두정춘송가는 시작되거나

울려오누나
이 백두전구에
첫 자욱을 새기시던
우리 원수님의
발걸음소리 발걸음소리

길가의 바위 하나
이따나우 한그루에도
장군님 숨결이 깃들어
한줄기 바람결도
사무치는 정을 불려오는 땅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밀고 힘찬 전진길의 족잡에서조차
북방천리 백암명을 넘으시던
우리 장군님

백두전구의 아들딸들이
얼마나 보고싶으셨으면
땅크를 타고서라도 가자고 하시며
외국방문을 마친길로
제일먼저 찾아주시었으랴

젖어드는 원수님 안방에
다가서며 인격드는 연애는
장군님 정이 어린 살붙이
장군님 남기신 유족자발전소

태길하는 눈보라에
하늘땅도 얼어붙는
북방의 사나운 겨울을 이겨내며
장군님 유흔을 지켜가는
불수룩 미덥고 장한 청년들

그들속엔 있구나
눈속에 권 만병초처럼
단발머리 날리며 웃음짓는
세쌍둥이의 그 모습도

은혜, 충실, 보람
휴대론 그 이름처럼
그 작은 가슴들에 간직한 사연도
남달리 뜨거운 처녀들이

오늘은 다 말하러마
하늘도 슬픔의 눈발 날리던
과년들의 그 12월
장군님 숨결이 이 건설장으로
탄원의 첫걸음 떼던 그 이야기

흰눈우에 또엿이 새겨지는
세쌍둥이의 발자국 발자국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찾아간 곳은
발전소건설지휘부

이름은 나이는 또 주소는...
지휘관들의 몸음앞에
소중히 꺼내놓는 세계의 금반지
아, 그것은 태어나 첫날
세쌍둥이의 요람에
우리 장군님 놓아주신 금반지

몰어선 무엇이하
그 금반지가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지레로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다 말해주고있는데야

몰어 무엇이하
너희들의 무릎에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이
천백마디 말을 대신하고있는데야

백두의 눈비속에서 몇몇해...
금반지의 귀족녀들이
이제는 나침반으로 자란 그 모습
몸에서 꺼내보이는 붉은 흙주머니가
또다시 우리 마음을 적시누나

-우리가 평양을 떠난던 날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떠온 휴이
애오
이걸 품고 일하면 대한수님들께서
세쌍둥이들이 오나라 하고 부르
시는것 같아
추위로 힘겨움도 다 잊게 돼요

그 시연길은 흙주머니
금은보화에 비기라
수령님들의 숨결을
생의 피술기로 안고 사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이여

그 정신 그 덩이
기적의 활화산이 치솟게 한
무한한 힘이었고
신념의 기둥이었고
영웅시화창조의 불꽃이었으니

아, 세상에 소리지라 자랑하고싶은
우리의 백두정춘들
몰탈몰고 따뜻한 그 가슴들을
열렬하고 뜨거운 정으로
포용하시는 원수님의 그 마음

약진의 걸기를 날리며
길풍쳐 달리는
백두산의 천군만마들
원수님은 공적명령을 내리신다

-자, 백두산로망이들
세상이 들쭉하게 따움을 치자
준공의 속포성으로
우리 당의 빛나는 청년중시의
역사를
은 세상이 펼쳐지!

그날부터
은 나라 길과 길들의 리정표들은
백두산!
그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 길가에 굽어치는
중강의 대오, 탄원의 대오
그위를 따라선 지친의 물결

군대와 인민, 청년들이 어깨걸고
변함없는 결심
백두전역은 그대로 불도가니
익숙과 전후방이 따로없는
가련한 대적전장

서두수의 밤하늘을 태우며
우동불이 타올랐어라
그 두리엔
수백수천의 추켜든 쇠불

이는
원수님 주신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공개당중회
엄숙히 추켜드는 무쇠주먹들
불빛에 번쩍이는 구리빛얼굴들

원수님 주신 이 불씨로

억년바위도 녹이는 불길을 우리 지퍼
리라
그 불길로
대양에도 불을 달리라

-우리의 진투목표는 청년절까지!
이 나라 청춘이 태어난 그날이
청춘연애의 생일이 되게 하자

어둠을 황황 태우는
폐활의 바다
손에 손에 추켜든 그 쇠불은
청춘들이 가슴에서 꺼내든
심장의 불덩이

백두산에
청춘분화가 거러올랐다
-오르자 백두산으로!
오르자 완공의 언저리로!

산병선에 선 병사와 같이
최후결전의 언저리로
최후승리의 고지대로
치달아오르는 돌격대원들

옛적엔 언제 쌓을지 몰라
언제라 불렀지만
오늘은 언제 다 올랐는지 몰라
그 놀라움에 언제라 부른다는
방만에 찬 그 이야기

영웅적후손도 혼연한 일로 된
격정장
아득한 언저리에 발판을 타고
매질소리 울려가는 나이린 돌격대원
고향집트락의 나무가지나 타고
없어났
들어넘기는 휘파람소리도 즐겁다

한결움이라도 뒤지면
원수님 품에서
천길만길 떨어지는데만 같이
순간이라도 주저없이
운명의 그 손길 놓는것만 같이

지쳐 쓰러졌다가도
러갈라진 두손으로
몰탈마테를 더듬어 찾았다
억척같이 다시 일어나
언저리로 치달아오른 돌격대원들

한치 또 한치
언저리로 오르는 그 길은
그리고 그리운
원수님 품으로 가는 길
백두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

또 한차례의 격정을 치른 전투장
에서
누군가 부르는 《문경고개》노래소리
그 노래 조용히 울려가는
언저는 정녕
안개도 오르다 쉬어넘는 문경고개
였거나

몰탈마테에 기대어 독잡에 든 돌격
대원들
따뜻은 어깨와 가슴들을
부드러이 쓰다듬는 안개는
어머니산 백두산이 감싸안은
근근한 인내가붙어라듯

언제 해가 뜨고
언제 별이 뜰는지
격정의 일렉기에서
낮과 밤의 계산을 지워버린 불사
조들
몇개의 산을 허물고
몇개의 산악을
저 언저리에 떠올렸던가

백역전의 날과 날이 흘러 120여일!
드디어 맞이한 언저로완공의 아침
하늘중천
기중기로 들어올린 몰탈마테에서
쏟아져내리는 꽃보라 꽃보라
홍날리는 꽃보라 꽃보라

피와 땀이 스민 언저리전만
너무도 좁단 같이
돌격대원들 장악된 두손으로
많이언 언저리를 쓸어보고 쓸어보고
얼굴들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저 언저리애 출렁이는것은
10여년 긴 세월
그대들이 맞고 해친 그 눈비가 아
니라
그대들이 뿌려온
애국의 피미운 구슬땀은 아니라
가련한 대적전장

거장하다 언제여
너는
500만의 피를 쓴 심장들이 안아올린
청년강국의 빛나는 기념비

오, 그 이름도 자랑스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탄생의 고고성을 터치던
격정의 그 순간
역사의 그 시각

열혈의 심장들이
그이를 우러러 풍- 풍-

소리없는 감격의 열과 굽어치는데
10월의 백두바람에 외부자락 날리
시며
연락에 나서신 김정은장군

평-
가슴과 가슴들을 두드리며
백두대지의 하늘을 흔들며
불우피마냥 울려퍼지는
원수님의 그 음성
-미머운 청년전위들!

아, 그리고 그리웠던 그 음성
어려울 때도 힘겨울 때도
언제나 심장의 벽을 울려
새힘을 주고 용맹을 주던
아버비의 정결은 그 목소리

-오늘 우리는
은 나라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축하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을
은 세상에 선포하게 됩시다

만세! 만세의 폭풍
격정에 초노격에
목소리마저 갈라진
울음섞인 만세소리
백두대지에 메이리치는 승리의 만세
소리

준공의 붉은 테프알에
금빛가위를 손에 드시고
저 멀리 금수산의 하늘가로
뜨거운 눈길 없으시는
원수님의 그 마음

잡으시어라
준공의 이날을 그려보시던
장군님의 그 마음으로
정년들을 진주보석처럼 내세워
주시던
장군님의 그 손길로

고고성을 터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붉은 태졸이던가
10월의 바람결에 길길이 날리는
준공의 테프어

길이 새겨안이라
이 나라 청춘들이
우리 원수님 품에서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역사의 끈결음을 내리던 이날을

감실분토 빛나는
강성국가의 대문도
이렇게 열어제끼리라
백두의 칼바람속에 다지고 버린
청춘의 억센 힘
청춘의 슬기로

아, 무궁장창한
청년강국의 미래처럼
가없이 푸른 하늘 눈부신 해빛
원수님 따라 나가는
조선청년들의 광활한 앞길에
우리 장군님 축복의 미소를 뿌리
신다

2
승리한 전쟁에 다들이세운
발전소의 문주
금빛해살을 모아안고
붉은 대리석위에 빛나는 천원기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우리 원수님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담으신 글발
백두정춘들의 가슴마다 달아주시듯
공화국영웅에달도 새겨주신
세상에 없는 문주여

승업해지는 마음으로
삼가 쓰다듬고 쓰다듬으며
이 문주를 지나 들어서나니
거장한 영웅청년연애를
백두의 노을이 기록처럼 감싸안았
구나

아하히 치솟아 정엄한 그 위용
내 오르고 또 올라 하늘끝에 서면
다 헤아릴수 있으랴
청춘들 바쳐온 애국총성의 높이
세상을 굽어보는 청년강국의 높이를

오시면 오실 때마다
멀리에서도 보시고
가까이에서도 보시며
돌격대원들이 흘린 땀을
무겁게 안아보시던 우리 원수님

가슴치며 울려오누나
언저리에 이르시어 차를 멈추시며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
-걸어서 갑시다

청년들의 고귀한 땀이 스며있는
언저를
어떻게 차를 타고 가겠소
우리 걸어서 갑시다

언저우에 새겨지는
그이의 자욱자욱

심어낸새월 청춘들 헤쳐온 눈보라를
마음속에 다 맞으시며
한자욱 또 한자욱

기슴치는 북방의 흑한속에서
두러운 얼음장을 부시며
사나운 강물기를 길들이며
준공의 이날로 달려온
그 돌격대원들 다 걸어보시는가

격정의 120여일
그 하루하루의 전투일보가
원만국가기 실린
그이의 집무실우에 놓이고
기적의 불길 거세한 백두전역의
낮과 밤을
그이들은 다 안고계시었나니

어쨌우 퍼붓는 장마비
시시각각 불어나는 급한 물살은
당장이라도 다리를 휩쓸어버릴듯
흔서와 새멜트를 실은
대형차들이 박힌듯 멎어섰다

보급로가 끊어진 전투장에
물같이 집집 떨어지거던 그 시각
누가 명령을 내렸더라
바람을 허리에 휘감고
사물들은 강물에 뛰어드는 돌격대
원들

물살에 휘부러졌다가
다시 솟아치 일어나
나무방울을 애원한 불굴의 그
모습들
-우리의 어깨를 넘어
전진하라 대오여!

어깨와 어깨우에 받들린 다리우로
한치한치 전진하는 자동차들
총탄이 비발치는 강물속에서
육단육단 되어 포지를 견내우던
영웅전사들의 그 모습

서두수는 총재
불물이 끊던 전회의 락동강
엄격을 내린 청춘들의 그 모습은
오, 결사투위의 억년성벽
백두산악이었다

산발을 쟁쟁 뒤흔드는
연철같은 그 의지
-불가능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단숨에 뛰어고 일떠서리

장하구나
고향이나 돌격대로 나올 뻔
자그마한 배낭도 어깨우에 무거웠
건만
오늘은 거장한 언저를 하늘가에
들어올린
백두산이 키워낸 창조지 기인들

노래없이 시업이야 그 무슨 청춘
이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혁명의 노래높이
만남은 웃음으로 해치운 락원가들

그 웃음은
설한풍 휩쓰는 험한 산중에
걸심같이 싸워 이긴
투사들의 숨결로 고통치는
열혈의 심장들이 피워낸 웃음

생활방식도 투쟁기풍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백두산의 근저지가 펼쳐진듯
붉은기날리는 귀족정병실들

설레이어라
애국의 마음을 뿌려깊이 심은
암교장의 애 어린 나무들
정감하게 뛰어놓은 김우에
항기풍기는 코스모스

사슴들이 뛰놀고 꿩들이 내러왔은
버들숲속의 정양소
보드장 물결우에 띄우는 웃음소리
저기 배구장에선 공과 함께 날오는
청춘들의 방만

투쟁속에서
시련과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투사들처럼 승리의 불을 부르며
백두대지에 꽃피운
선군청년문화어

가슴뜨겁구나
꽃같은 웃음이 펴기지는
돌격대원들 추녀어래
추녀어래의 막내아니
생일을 맞던 그날의 이야기

소박한 생활음식을 차린 못나무방상
한가운데엔 싱싱한 들꽃뿔뿔
저마다 안겨주는 생일기념품
누구는 자그마한 손거울 또 기념
수첩
누구는 고향에서 보내온 파란 비웃

그중에서도
제일 기쁘게 받아들인것은
처녀들의 부러움에 찬 시선은

한데 모으는
하얀 새 마데

마데전의 앞장에서 달리다가
해진 마데 부어잡고 안타깝던
추녀어
오늘은 웃음꽃 활짝 폈구나
화려한 새옷을 펼쳐입고 나섰단들
그 웃음보다야 더 폼나라

네 웃음앞에 젖어드는 이 마음
너희들의 나이를 세어본다
계절따라 새옷을 차려입고
곱게 단장하고
아름다움을 한껏 폼내고싶은 그
나이

봄날의 꽃길보다
혁명의 눈보라길에서
더없는 행복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백두정춘의 아름다움

빙설천지에서 생을 불태운
선열들의 그 넋을 이어받은 청춘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
아름다우리라 매일의 청춘들도

이렇듯 장한 청춘들이어서
우리 원수님
은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고싶으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주고 또 주시는 사랑

황금벌의 기름진 옥매미가
높고 험한 백암경을 넘어왔다
바다향기 피말항기가
풀안가득 병실가득 넘쳐흘렀다

날마다 찾아오는 그 사랑
날마다 위훈을 남는
무한한 힘이 되고 비약의 나래
되어

그 용맹 하늘에 닿은
백두정춘은 기적의 탄도탄들
우리 원수님

강결은 불속에서 단련된다 하라
허나 우리 청춘들은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신념과 의지를 억세게 버리고
백두산에 안기어 평강으로 자라나
거니

때로 지치고 힘겨울 때
때로 넘기 어려운 산악이 막아일 때
불은기의 피덕임소리를 안고 오고
혁명의 노래를 심장에 울려준
백두의 칼바람

용진용진
백두의 칼바람안고 나아가던 그 정신
물길결에 새겨진 글발결에도 멎지
하거니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살아도 죽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그 어느 돌격대원 여기에 맹세를
없었는가
뿜져산의 굽은 절개
그 누가 글발로 새겼는가
생느알고 지며 혈로를 헤친 투사들
처럼
버럭우에 족잡지며
결사투원을 이가던 청년돌격대원들

항일의 혈전만리가 굽어치던
천고의 밀림속을 내 걸는듯
들려오누나
만리광야를 내달던 눈보라소리
뿜져산불은기의 피덕임소리

3
지닌 녀도 슬겉도
투사들과 하나인 백두정춘
죽어도 버릴수 없는 혁명신념은
오늘의 김정은백두산의
붉은 혈조이며 맹목

어이 다 헤아리랴
장대와 함마로 까면 천원안방이
산을 이루어 그 얼마였는지
살매전 발전의 눈보라같은
모진 고평도 탈게 여기며
투사들의 행군로를 이가던 길

여기에 다 있어라
암반조각들이 발밑에 밟히는
그날의 물길굴전투장도
서두수의 차치한 물속에 뛰어들어
은몸이 《얼음기둥》이 되어
매루를 떠맡든 결사대원들의 그
모습도

거장한 발전소만이
내 나라의 제부이라
청년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가장 귀중한 재부로 빛내주신
우리 원수님

그 혁명성, 희생성, 애국심을
청년돌격정신으로 불러주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이어주셨
나니

원수님 열어주신 답사길따라
들어서고들어서는 대오
영웅청년들의 군상앞에서
혁명가의 선서를 심장에 얹으며
영웅청년들의 대오는 끝없이 태어
나리라

자부하나라
청년돌격정신이 창조된 곳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태어난 백두산
선군청년문화의 고향도
성스러운 백두대지

범위다오 시간이여
격정의 이 순간에
하늘이여 땅이여
하얀 구름들 아름다움 일만꽃
여기에 다 괴워 속복해다오
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는 이날을

우리 아노라
돌격대원들의 두볼에
줄줄이 흘러내리는 저 눈물
눈물보다 뜨거운 말이
이 순간에 더 없음을

가까이 더 가까이
원수님 품에 안겨드는 청년들
심장을 터쳐 이겨이누나
거들거들 약속해주신 영광의 오늘이
기적을 떨치게 한 웃음은 힘이였
다오
승리의 10월애로 총풍결이 떠밀렸
다오

꽃에도 열매같은
한생의 소원을 다 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께선 언저와 함께 성장한
미더운 청년들을 한몸에 안으셨다!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어
영웅청년들을 안아키우신분
출기차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장에
강철의 대오 청년대군을 세워
승리의 만년대계를 마련하신분

영웅청년들을 품안으시고
우리 원수님 환하게 웃으실 때
백두산은 또다시 새겨안았어라
뿜져산전우들과 어깨걸고
밀림우에 밝은 미소 없으시던
항일의 김대장 그 모습들

오, 백두산
일찌기 그 누구 노래했거나
수만의 용사 그대 바위돌에 잠겼을
간다고
이제 용사들이 벼락같이 쏟아지나
오면
이 땅에 해방정이 일어난다고

그때도 성산 백두산은
자기 품에서 청년장수들을 길러냈고
오늘은 수백만의 투사
기개높은 청년맹장들을 키웠거니
아, 위대한 그 붉은
백두산청년강국을 이 행성우에 우뚝
세우신
우리 원수님 품이여라

6면으로 계속

백두산영웅 청년신화

4 면에서 계속

붉은기바다에 되찾히는
《적기》의 노래소리
혁명의 투쟁열로 심장을 끓이며
당을 따라 영연히 한길에 걸
청년대군의 발구름소리를 들으시
여라

그이 심중속에
별빛의 운상처럼 떠오르는 모습들
아득한 세월 저 멀리
혁명의 닷을 울린 첫 기술에서
한번의 노래 부르며 첫걸음엔 전위
투사들

밀림의 우뚝봉에서
홍겨운 하모니카바주에
총대총을 펼치며
승진의 기쁨을 터치던 빨찌산의
그림이
10월의 이 백두대지에 펼쳐진듯

그날의 빨찌산용사들
그 후손들이 오르는
수백만의 투사로 자라나
백두산악우에 우뚝 섰거니

조선혁명의 발원지 백두산에서
하늘땅을 휘흔드는 청춘들의 노래
청년대군의 그 기상
노도로 추구는 그 그림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활력이며
미래!

추포가 오른다
신령들의 피어린 전구에
만년언젠가를 찾아올린 그 위훈
저 하늘가에 아로새기며
추포의 불보라가 들려오른다

개척지에 떠오르던 우뚝봉
엄동철하에도 흩날리던 땀방울
완공된 언덕에 뜬된 기쁨의 눈물을
평평한 불꽃으로 수놓는 추포여

정일봉아래 펼쳐진
사회주의 무동도원의 첫 동태
백두산마을의 황홀한 불야경이
천색만색 불보라에 어려
하늘가에 아름답게 흐른다

서투수물줄기도
금줄같이 되어
불꽃모가 되어
언제우에서 쏟아져내린다

오, 추포여 너는
우리 원수님
자랑스런 청춘들을 두팔로 안아올리
시어
저 하늘에 빛내주시는 청춘별무리
애국정령의 땀방울 아낌없이 바쳐
가는
청춘들의 힘에 대한 아름다운 송가

저 하늘의 못빛보다 더 많은
청춘분들이 떠오른다
세상을 돌리라면
청년들이 우뚝이고 어둔인 나라들도
맑건만
이 땅에선 자랑이고 광명이며
밤하늘도 저렇듯 밝구나 아름답
구나

추포성 그것은
애국심으로 이글거리는
백두정총을 돌리며
분화기를 터치는 소리
결사투위의 위성들이
불꽃기를 내뿜으며 추구쳐오르는
소리

원수들은 진몰하라
승리와 기적의 칼바람
백두산칼바람속에 버려진
사상의 대군
신념의 대군
백두산에도 비김수 없는
김정은장군의 영웅청년대군앞에

백두의 산악처럼 억세고
백두의 이갈처럼 강직하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한
우리 당의 전위투사들

행복한 날에도 존엄한 날에도
원수님 마음속에 언제나
기둥으로 억척의 지지점으로 있는
백두정총들의 이야기
언제건설의 이야기만이 아니거니

역사여, 너의 새 페이지를 펼치라
우리의 이 시도 추포처럼 터지며
너의 걸보들 금줄자로 새겨라
세상에 다시 없을 청년들의 애국
신화를

일촉즉발의 전쟁전야
8월의 그 시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고
깊이 깊어진 최고사령부의 밤

작전탁에 쌓였다 낮아지고
또 쌓이는 문건들
전선장병들과 인민들이 보내온 편
지들...

그이끼신 반갑게 펼치셨다
백두정군의 청춘들이
전선편지를 펼친 편지

인간의 모든것을 검증하는 시련
안에
백두산처럼 끄떡없는 모습으로

당중앙을 옹위해나신 영웅청년들
백두산을 날아내려
단숨에 남해까지 짓쳐나갈 그 기상
신념의 대군

얼마나 미미운 모습들이나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혁명신념을 키우고 속대가 굽어진
청춘대하칼업생들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그 정은 더 깊어져
원수님 마음속에
그 이름은 일당백병사
그 이름은 미미운 전우
그 이름은 열혈의 동지

전선편지를
원한 종이 아닌
언제에
심장의 끓는 피로 쓴 용사들

마지막 정대를 총창처럼 번득이며
언제를 다져올렸다
오, 그것은 신념의 성배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청춘성벽

전쟁도발자들의 미친 광증을
물거름으로 만들고
대수리를 안아오신 원수님
백두정군에서 보내온
언제완공의 보고를 기쁘게 받으시
었다

나의 청년전위들
승리를 축하한다
백두정총들과 심증의 대화를 나누
시며
당장전 70륙경축 열병식에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를 불러주시
고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대단히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총몰개를 일으켜나
갔다.

《너는 꽃이리!》, 《올라
라》, 《영양의 사계절》을 비
뿡뿡한 경쾌한 노래선율에 따라
어제술 들먹이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당의 품속
에서 보람찬 사랑을 누려가는
데없는 긍지와 행복감이 어렸
었다.

해빛도 유난히 눈부신
10월의 김일성광장
백두백세의 조선로동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할 청년대군의
신념이
도도히 굽이치는 경축광장

발걸음소리가 쟁쟁 울리며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중대가 행진
해간다
공화국영웅메달이 빛나는
기발을 펼칠 날리며

백두산하방들이 감기를 세우고
땅을 구르는 발굽소리
천지를 떨치는 마소소리
광장에 울려 퍼지는듯
백두산의 번개를 치며
우리를 치며 나간다

우리 원수님 안팎에
뜨거운 정의 미소 빛난다
한말뚱에 달려내려가
모다시 꺼안고 주고 싶은 그
심경
높이 드신 거룩한 손권에 담아
오래도록 저어주신다

한별만세를 부르며
조선혁명의 진군로를 개척한 청년
전위들
빨찌산의 그 기쁨기를 용용히 이어
가는

주제혁명위원의 계승자들
태양기 전투에 날리며 진군해간다

건설을 해도 기적의 신화를
사용을 해도 백성의 신화를
원수님 따라 나가는 영평의 길에
영웅신화를 풀이 이어갈
세기와 세월을 넘어

피끓는 청춘대오

최후승리를 향한 돌진력으로
창파를 치우며 폐속으로 질주
하는
청년대군의 무적함성앞에
광활한 미래가 마주 달려온다

세계여 보라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대군의 기상을 보라
김정은장군 따라 하늘땅 끝까지
폭풍처럼
승리와 영광의 대오를 보라

금벌의 대하로 적투하는
무적필승의 청춘대오앞에
백두정군의 위대한 축복이 울려
온다
-존엄 높은 백두산청년대군의
주인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
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 * *

백두산!
영웅초전을 날고
영웅인민을 날고
영웅청년신화를 날고
성스러운 어머니산

신비로운 건설의 산이며
청년장군 빨찌산 김대장
산정에 올라 장군님이
눈부신 재광을 삼천리에 휘뿜며
그대의 영웅신화는 시작되지 않았
더나

* * *

백두산장군들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승리와 기적의 력사민을
한가슴에 새겨안은
혁명의 성산

만년설 미인 산정에
청춘활화산을 터치며
위대한 청년강국을
세계우에 우뚝 발돋움했거니
젊음을 넘쳐 약동하는
조선의 미래는 천만배라

신호란총성 울린다
새 공적전로를 차치하고
새로운 공적속도를 창조하며 나아
가는
천만대오앞에
우리 원수님 울리신 신호란총성

그 총성의 매아리를 안고
천하를 굽어보며
김정은장군의 산, 백두산은 웅치다
-나의 용감한 아들딸
500만 청년대군이여
폭풍처럼 내달라라
광활한 미래를 향하여 총배진
하라

위대한 백두정군 발걸음따라
기개높이 진군하는 청년전위들
백두백세의 신화를
새대와 세대를 이어 떨치며
모든 승리와 영광을 앞당겨 맞이
하라

오, 백두산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을 안아키우신
위대한 김정은장군 만세!
우리 당의 청년중사시사 만세!
백두산청년대군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로씨야연방 사법성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무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동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8일 알렉산드르 크노
발로르 사법성을 단장으로 하는

당 창건 70돐 기념

4.15기술혁신들려대 전국기술혁신경기 진행

당창건 70돐을 맞아 4.15기술
혁신들려대 전국기술혁신경기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
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시
고창성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
하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조직된 이번 경기에는 전국외
공작, 기업을, 협동농장 4.15
기술혁신들려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기간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진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를 세우고 대동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각지 돌격대들에서는 경기기간
6만 3 000여건의 가치있는 기

수확과 결실의 향연이
다채로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표단원들은 나라의 강성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환경생명을 바치시었으며 조로운

신관계의 강화발전예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전세원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
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현대화,
자동화하였으며 중앙정부
국과 함흥지방지공작의 돌격대
원들도 설비의 극진화를 실현하
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
었다.

4.15 기술혁신들려대 전국
기술혁신경기총화모임이 18일
인민문화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
리, 관계부처 일꾼들, 모범직공
4.15 기술혁신들려대원들과
현장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
였다.

총화보고를 개최한 조선과학
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
장이 하였다.

경기순회가 발표되고 우수한
단위들에 우승기와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로씨야연방 사법성대표단
해방탑에 화환 진정

알렉산드르 크노발로르 사법
성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연방
사법성대표단이 18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원들이 서있었다.

우상철 최고재판소 부소장,
관계부처 일꾼들과 알렉산드르
마예고라 주조 로씨야연방 특
전권대사, 대사관직원들이 여
기에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공식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인도네시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안팎일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3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 표신에 이응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

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며
드림것을 대사에게 부탁하
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
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이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송파
호 체육성 부상이 전승하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대단히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총몰개를 일으켜나
갔다.

《너는 꽃이리!》, 《올라
라!》, 《영양의 사계절》을 비
뿡뿡한 경쾌한 노래선율에 따라
어제술 들먹이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머니당의 품속
에서 보람찬 사랑을 누려가는
데없는 긍지와 행복감이 어렸
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
위에 강성부흥의 찬란한 미래를
만드신 안아온 온 나라 청년
녀들의 드림없는 의지를 반영한
《당을 따라 열렬히 나도 살리!》,
《행복의 태양》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도회분위기는 고
조를 이루었다.

대를 이어
누르려는
신근 시대
조선녀성들
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
의 분출인양
《인민이 사
랑하는 우리
령도자》 등
의 노래소리
가 무도회
에 매아리
쳤다.

《인민의
나라》의 노래
로 끝난

수행목, 장군복을
김정은동지의 신군영도를 충경
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되었다.

전시회에서는 김일성총화대
감,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정보
기술국, 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
소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들과
프로그램개발원들에서 내놓은
우리 조 조직적용용 프로그램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계부처 일
꾼들, 프로그램개발자들이 여
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심사결과
가 발표되고 특등을 한 특대운성
에 순위우승자가 수여되었다.

합경남도인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그리고 바다가양
시에서는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사부해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사부해 '우리의' 라는 표창을 사랑
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최길수동무를 비롯
한 합경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꾼
들과 감독원들이었다.

언제나 그들이 민시들의 존경을
받고있었는데 단지 자기 일수에
대한 높은 책임때문만이 아니다.

당에서 바라는 문제라면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맡아안고 그것을 풀기 위하
여 애써 노력하는 애국자들이
이기에 모두가 스스로일마다
따라여 존경하는것이이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일꾼들은 누가 보지않건
진심으로 당을 받드는 혁명의
투사가 되어야 하며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어느날
이었다.

그날 저녁 차량감독소의 한
사무실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
려나왔다.

《바다가양시민들을 대대적으
로 놀이는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합경남도에 주신 과업이
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도인의
수산부문을 적극 투자하는것을 제
기합니다.》

소장 최길수동무의 절절한 호
소는 차량감독소 일꾼들과 감독
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

중합봉사선 <무지개>호

주조 외교 및 국제지구 대표들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참관, 전선 도입 진행

주조 외교 및 국제지구 대표들이
18일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참관하였다.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선정된 우리 인민이 최상의
수준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직접
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
《무지개》호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적인 봉사선
으로 훌륭히 건조된데 대한 해설
을 들으면서 봉사선의 내부를
돌아보았다.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
에서 실현되고 모든 요소소스가
【조선중앙통신】

종합에 없는 현대적인 봉사선
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군
로차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님들
은 인민의 품과 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
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날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에서는 외부에서 마련한 주
조 외교 및 국제지구 대표들과
의 친선모임이 진행되었다. 주조
외교 및 국제지구 대표들과 위무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드들의 가정정형을 토해하던
최길수동무는 2대의 트랙트
르가 가동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농정일꾼들을 만나 시연을 알
아보니 필요한 부속품들이 미처
도달되지 않아 <무지개>호는
다. 그때 농정일꾼들은 차량감독
소인민군이라 그저 분진기때문
에 생기는 과다야를 수집해
줄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 군을
담당한 감독원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뿜도록 하였다. 그

그날 저녁 최길수동무는 일꾼
들과 감독원들에게 구체적인 분
담을 주고 해당 단위들로 떠나
보았다.

다음날 최길수동무는 자신부
러가 앞장에 서서 해당 부문의
운수일꾼들과 운전사, 운전수들
에게 분진기제들의 기술검사와
정에 생기는 과다야를 수집해
줄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 군을
담당한 감독원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뿜도록 하였다. 그

그날 저녁 최길수동무는 일꾼
들과 감독원들에게 구체적인 분
담을 주고 해당 단위들로 떠나
보았다.

다음날 최길수동무는 자신부
러가 앞장에 서서 해당 부문의
운수일꾼들과 운전사, 운전수들
에게 분진기제들의 기술검사와
정에 생기는 과다야를 수집해
줄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 군을
담당한 감독원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뿜도록 하였다. 그

그날 저녁 최길수동무는 일꾼
들과 감독원들에게 구체적인 분
담을 주고 해당 단위들로 떠나
보았다.

다음날 최길수동무는 자신부
러가 앞장에 서서 해당 부문의
운수일꾼들과 운전사, 운전수들
에게 분진기제들의 기술검사와
정에 생기는 과다야를 수집해
줄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 군을
담당한 감독원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뿜도록 하였다. 그

그날 저녁 최길수동무는 일꾼
들과 감독원들에게 구체적인 분
담을 주고 해당 단위들로 떠나
보았다.

다음날 최길수동무는 자신부
러가 앞장에 서서 해당 부문의
운수일꾼들과 운전사, 운전수들
에게 분진기제들의 기술검사와
정에 생기는 과다야를 수집해
줄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 군을
담당한 감독원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뿜도록 하였다. 그

그날 저녁 최길수동무는 일꾼
들과 감독원들에게 구체적인 분
담을 주고 해당 단위들로 떠나
보았다.

다음날 최길수동무는 자신부
러가 앞장에 서서 해당 부문의
운수일꾼들과 운전사, 운전수들
에게 분진기제들의 기술검사와
정에 생기는 과다야를 수집해
줄것을 호소하는 한편 시, 군을
담당한 감독원들에게 이 사업을
일관하게 내뿜도록 하였다. 그

언제나 부강조국의 밑뿌리가 되여

합경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꾼들과 감독원들

바다가양시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어느때보다 더욱
합격이 벌어지고있었다.

그 순간 최길수동무에게는
피로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차량감독소로부터 일
하는 자기들이 운수일꾼들과 운
전사, 운전수들을 많이 대상하
는것만큼 그들에게 호소하면 파
다야야를 얼마든지 회수할수
있다는 생각이였다.

그날 저녁 차량감독소의 한
사무실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
려나왔다.

《바다가양시민들을 대대적으
로 놀이는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합경남도에 주신 과업이
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도인의
수산부문을 적극 투자하는것을 제
기합니다.》

소장 최길수동무의 절절한 호
소는 차량감독소 일꾼들과 감독
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

는 농정일꾼들이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이지 차량감독소일꾼들의
몹은 아니거니와 아니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최길수동
무는 인해 강경운동무와 토론하
고 가정에 도착하였던 자급으로
배어넣을 비롯한 여러점의 부속
품을 마련한 다음 다시 박제형
동무와 함께 동흥협동농장으로
달리나가 트랙트르수리를 성심
성의로 도와주었다.

《제가되는것이 있으면 아무
매진 찾아와 이야기하십시오.》
나라의 쌍둥을 채우는 일에서
는 내일, 내일이 따로없다고 하
면서 온 하루를 트랙트르수리에
바치고 자기의 사무실전화번호
까지 알려준 최길수동무가 그곳
농정일꾼들과 헤어지면서 한 달
이었던.

최길수동무의 모범을 본받아
본사기자 홍성철

